

《偽好物：十六至十八世紀「蘇州片」及其影響》

2018. 04. 01 - 2018. 06. 25

臺北故宮博物院

111台北市士林區至善路二段221號

이주현*

타이베이 고궁박물관에서는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偽好物> : 16-18세기 蘇州片 및 그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명말청초에 제작된 소주편을 전시하였다. '소주편'이란 명대 후기 강남지방의 도시, 소주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서화시장이 형성되면서 직업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위작 회화를 일컫는다. 대부분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소주편을 '위호물'이라 하여 칭한 이는 북송대 감식가로 유명했던 米芾이었다. 미불은 鍾繇의 <黃庭經>을 발견하였으나 이것이 唐代의 模本임을 알고, 비록 진작은 아닐지라도 그 미적 가치를 인정하여 이를 '위호물'로 지칭한 것이다.

작은 화첩으로부터 4미터 길이의 長卷들에 이르기까지 전시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청록 산수화·공필설색의 인물·화조화들은 관람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전시된 소주편들은

李思訓, 李公麟, 趙伯駒로부터 趙孟頫, 沈周, 文徵明, 唐寅, 仇英에 이르기까지 유명화가들의 관지를 달고 있으나, 최근까지만 해도 진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와 전시로부터 도외시되던 작품들이었다.

전시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섹션은 소주편 가운데 단일주제로는 가장 많이 그려졌던 <清明上河圖> 등이 전시되었다. 흥미로운 작품은 소주편의 제작자로는 드물게 이름이 밝혀져 있는 黃彪의 작품이었다. 황표는 명대의 권세



* 명지대학교 교수

가 嚴嵩을 위해 張擇端의 <청명상하도>를 위조했던 소주의 화가로, 전시된 <九老圖>에는 섬세한 작가의 필력이 잘 드러나 있다. 또한 『東京夢華錄』에 서술된 상점과 동일한 상점명이 등장하여 주목을 받는 張擇端 款 <清明易簡圖>는 이미 수차례 전시된 바 있으나 그 생동감 있는 묘사로 주목을 끌었다. 이외에 다수의 仇英 款 <청명상하도>들이 전시되었는데 요녕성박물관 소장인 명대 구영 관 <청명상하도>를 토대로 한 다양한 구성상의 변주가 눈에 띈다.

2섹션에는 '명 중기 이후 소주편의 새로운 전범'이라는 주제로, <明皇行蜀圖>와 구영의 진작 <仙山樓閣圖>를 위시한 다양한 청록산수 계열의 소주편들이 전시되었다. 경제 부흥으로 소주가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문인들의 골동품과 서화수장 열기가 확산되고 고화를 위조하는 작방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재가 제작되었다. 仇英 款 <畫連昌宮詞>, 仇英 款 <畫長信宮詞> 등은 소주 유명 서예가의 위조 제시와 발문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3섹션에는 상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다양한 소주편들이 전시되었다. 구영의 <漢宮春曉>, <百美圖> 등의 궁정사녀도 류, 司馬相如의 上林賦를 묘사한 <上林圖> 류, 길상적이며 도교적 의미의 <群仙會祝>, <瑤池獻壽>, 도덕적이며 교훈적 주제의 <二十四孝冊>, <養正圖解> 등이 전시되었다. 이 섹션의 백미는 단연 구영의 진작 <漢宮春曉圖>라 할 수 있다. 王昭君의 일화를 소재로 한 <한궁춘효도>는 唐나라의 미인도 계열을 이으면서 담아낸 채색과 세필의 묘사력이 뛰어난 작품으로, 소주편의 특징인 장식성, 도식성과 구별되는 구영 회화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4섹션은 소주편과 청대의 궁정회화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소주편의 제작이 증가하자 유통 지역이 소주를 넘어 북경의 황실로까지 확장되었고, 황제는 수장품 가운데 소주편을 궁정화가들로 하여금 임모케 하였다. 건륭황제 수장품 목록인 『石渠寶笈』에도 상당량의 소주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옹정·건륭년간 화원화가들에 의해 완성된 <清代 院本 清明上河圖>의 상당부분이 구영 관의 소주편 <청명상하도>로부터 유래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12月令圖>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려한 청록산수를 배경으로 황가 건물을 묘사해야했던 청대궁정화가들에게 있어 소주편은 유용한 전범으로 작용하였다.

이번의 소주편 전시는 진작 혹은 위작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평가기준을 넘어, 소주편을 명말·청초 소주라는 도시공간에서의 역사적·문화적 산물로서 제시하였다. 16-18세기 강남에서 매매되던 소주편이 서화유통 구조를 통해 황실로까지 유입되어 궁정화가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었음은 서화시장의 회화사적 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최근 소주편에 대한 학술적 관심의 증가 역시, 현대 서화시장에서 소주편 매매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소주편은 중국회화사 연구의 영역을 넓혀 줄 '작품'으로 연구가치가 충분한 흥미로운 미술품이라 할 수 있다.